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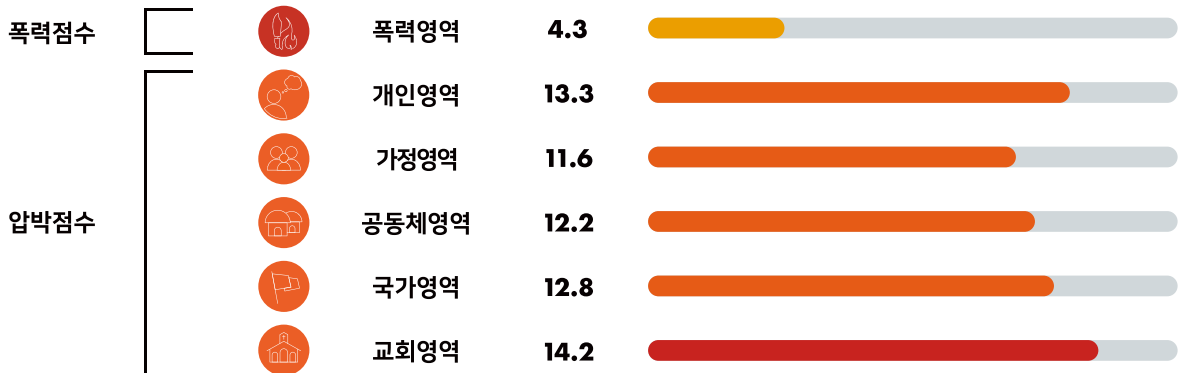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KAZAKHSTAN)

기독교 박해지수
38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2011년 9월에 도입된 법률로 인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카자흐 정부는 무장 이슬람을 위협으로 삼아 명분을 내세우며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모임을 급습하거나 체포를 진행한다.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카자흐 인구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가장 적은 문제를 겪는다. 반면,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토착 기독교인들은 국가,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심각한 탄압을 겪는다. 일부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오랜 기간 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하고 결국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지역 이맘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Kazakh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

인구 : 19,828,000명

기독교인 수 : 5,031,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5,031,000	25.4
무슬림	13,935,000	70.3
불가지론자	684,000	3.4
무신론자	92,200	0.5

출처²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공화국으로, 1991년에 독립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정부는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해 억압적인 정책, 실질적 야당 부재, 엄격한 언론 통제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2019년 토크야예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재선되었고 2023년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국제 관측단은 선거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출처: 자유유럽라디오/자유아시아방송[RFE/RL], 2022년 11월 21일).

카자흐스탄의 주요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며, 카자흐인들은 무슬림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은 이슬람의 교리보다는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70년에 걸친 소련의 무신론이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정부는 강력한 세속주의 노선을 고수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헌법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혹은 다른 신념을 따르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신앙을 전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권리는 등록된 종교 단체에 국한되며, 특히 카자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단체에만 허용된다. ‘전통적’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피 수니 이슬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및 로마 가톨릭, 루터교, 유대교를 지칭한다”(IRFR 2023 카자흐스탄).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 2024년 5월 접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공인 교단은 러시아 정교회(ROC), 우크라이나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이다. 카자흐스탄의 기독교인 대다수는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 민족으로, 주로 국가 북부에 거주한다. 카자흐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국가 정치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도입된 종교 관련 법률에는 종교 공동체의 재등록 의무, 미등록 종교 활동 금지, 국내에서의 종교 자료 제작 및 배포 제한, 어린이 대상 여름캠프와 같은 종교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특히 개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신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예배를 급습하고, “종교적 불화를 조장한다”는 발언을 처벌하며, “불법 선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구금한다. 2022년 1월 개정된 종교법은 국가의 종교 검열 범위를 더욱 확대했으며, 국가에 등록된 예배 장소 외부에서 종교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 관리들에 의해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국가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종자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압력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압력은 도시 외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러시아 정교회(ROC)는 카자흐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아 비교적 자유를 누린다. 또한 카자흐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에 어려움을 가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은 국가의 제약 아래 고통 받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들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전도 활동을 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급습, 위협, 체포, 벌금 등의 탄압을 겪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독재적 편집증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 기관만 허용된다. 당국은 미등록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을 급습하고 체포하는데, 특히 개신교인들은 현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외세적 영향으로 간주된다.

이슬람 억압과 씨족적 억압의 결합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력과 때로는 폭력을 겪는다. 여기에는 가정 내 감금이나 집에서의 추방이 포함될 수 있다. 카자흐 지도자들은 (당국의 지원을 받아) 개종을 카자흐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많은 개종자들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유지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카자흐스탄 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을 남성에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전통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성별 기반 폭력, 일부다처제, 아동·강제 결혼, 신부 납치, 만연한 가정 폭력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은 거의 없다. 여성 개종자들은 신체적·언어적 학대, 괴롭힘, 협박, 가택연금 등 더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무슬림과의 강제 결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납치와 연관되기도 한다. 높은 실업률과 제한된 경제적 독립성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남성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이 겪는 종교적 박해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반영한다. 남성들은 심문, 벌금, 구금, 투옥의 위험에 직면한다. 특히 무슬림 다수 국가의 강력한 통제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에게 의무적인 군 복무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언어적 괴롭힘

과 신체적 폭행을 당한다. 직업 상실 또한 개종자와 교회 지도자에게 위협으로, 이는 부양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양심에 반하는 군 입대·의무 복무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38	68
2024	47	65
2023	48	65
2022	47	64
2021	41	64

카자흐스탄은 2025년 세계 박해 지수(WWL)에서 68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WWL)보다 3점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승은 주로 폭력 영역에서 점수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족 영역과 교회 영역의 점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지역사회 영역의 점수는 다소 상승했다. 개인 영역과 국가 영역의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5월: 지난 두 달 동안 남부 카자흐스탄에서 경찰의 급습, 체포, 벌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침례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국가의 종교 자유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Forum 18, 2024년 5월 3일; Christian Post, 2024년 5월 17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구금된 기독교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국내 실향(내부)이주 기독교인
2025	3	7	19	19
2024	1	0	25	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카자흐 문화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농촌 지역에서 개종자들은 신체적 폭력을 당할 수 있어 새로운 신앙을 말하기를 꺼리고, 개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독교 자료를 숨긴다. 비전통적 개신교인들은 국가 당국으로부터 쉽게 전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무슬림 아이들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종종 권장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슬람 수업에 참석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이단'과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복음주의자를 포함한 종교 소수자를 겨냥한 부정적 선전을 퍼뜨리는 국가 지원 공개 모임을 개최한다. 이 모임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참석 분위기이다. 또한 기독교 가정이 카자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체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감시, 심문, 위협을 받는다. 미등록 교회는 지방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급습을 당한다. 교인들은 불법 종교 활동을 이유로 위협, 벌금, 구금을 당할 수 있다. 경찰 기록에 올라가면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가 영역

헌법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무슬림 위원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인정한다. 그 외의 모든 종교 공동체는 2011년 법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비전통적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교회 영역

신앙 기반 학교와 비정부기구(NGO)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수행하는 사회봉사는 전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반대에 직면한다. 종교 문서의 인쇄와 배포도 제한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카자흐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카자흐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비전통적 교단 교회들은 급습을 당하고 참석자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된다 (ICCPR 제9조, 제18조, 제21조)
- 종교 문헌의 소유와 열람은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심각하게 제한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은 당국과 지역사회에 의해 감시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되어 무슬림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ICESCR 제10조)

카자흐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카자흐스탄 헌법은 국가를 세속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비전통적 종교 단체들을 제한하며,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니파 하나피 학파 이외의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도 포함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2024년 카자흐스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은 카자흐스탄을 세속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피 수니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회를 카자흐스탄의 전통적 종교로 인정한다. 정부는 그 외 종교 단체들과 ‘전통적’ 종교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들, 특히 이슬람의 다른 해석을 따르는 이들을 비전통적 집단으로 간주한다. 당국은 이러한 집단의 종교 활동과 관련된 구성원들을 더 자주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국무부(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IRFR 카자흐스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당국이 임대 시설에서 열린 종교 모임을 방해했다고 보고했다. 또 관찰자들과 소수 종교 집단의 구성원들에 따르면, ‘비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종교 집단들, 즉 여호와의 증인, 침례교인 및 다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그리고 히잡이나 다른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장을 선택한 무슬림들은 여전히 더 큰 사회적 감시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카자흐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로 지원한다.

- 문서 배포
- 기도 지원
- 성경 교육
- 아동 및 청소년 훈련
- 여성 사역
- 현장 사역
- 사회·의료 사역
- 직업 훈련 및 소액 대출
- 아동, 남성, 여성들을 위한 재활 센터와 같은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